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답사 회원들이 남산 용장사지 삼층석탑을 답사하고 있다.



용장사지의 삼층대좌석 여래좌상. 매우 독특한 양식이다.



약수곡 제4사지의 불상에 대해 최민희 소장이 설명하고 있다.



답사회원들이 남산 금오봉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암 봉우리 올라선 석탑은 신라 佛心の 상징

신라인들의 수미산을 찾아서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경주 남산에도 내려왔다. 가을의 한 가운데에 찾은 경주 남산도 울긋불긋 단풍 옷으로 갈아입고 오는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주 남산에는 주봉이라고 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모든 봉우리가 저마다의 다른 높낮이와 특색과 이야기를 가진다. 경주 신라문화원 남산 불적답사단이 11월 답사에서는 남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금오봉에 올랐다. 약수곡에서 용장계까지 남산의 처치가 노상 불교 박물관이듯이 두 골짜기와 계곡에도 수많은 절터와 불상들이 존재한다.

산길 따라 펼쳐진 약수곡 사지들

남산을 오르기 위해 선택한 곳은 약수곡이다. 약수곡은 현재 경주교도소의 뒤편으로 이 길을 따라 오르면 금오봉이 나온다. 약수곡 내에는 5곳의 사지와 석조여래좌상과 마애대불, 2구의 불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무문토기, 고분군들이 산재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약수곡 입구에서 900m정도 올라가면 제1사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5개 사지 중 유일하게 탑지가 확인된다. 사지의 가장 상부에는 무너진 탑재들이 즐비하다. 현재는 지대석과 상층기단면석과 갑석, 탑신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탑이 소규모이면서도 이중기단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능선을 따라 오르면 제3사지를 만날 수 있다. 이곳

에서는 초석과 광배편들이 발견됐다. 특히 광배편들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 결실돼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양면에 당초문 등이 조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은 광배편에서 양면불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일전 보리사 불상 광배 뒤편에 약사불의 조각된 것을 답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양면불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곳의 광배편을 보면 제3사지에는 양면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근에는 제4사지가 있다. 이곳에는 머리 없는 불상 한구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엄지손가락도 잘려나갔고, 상대석과 중대석은 석불과 따로 떨어져 흩어져 절반쯤 묻혀 있다. 결과부좌로 앉은 석불은 풍만한 몸체로 우견편단의 가사를 입고 있고, 상대석에는 연꽃이 위로 향하고 있는 양련(仰蓮)이 24개 새겨져 있다.

금오봉, 용장사 그리고 김시습

약수곡을 따라 1시간 여를 오르면 금오봉이 나온다. 남산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로 해발은 486m이지만 그 길은 만만치 않다. 남산의 금오봉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산으로 전해진다. 최 소장은 당나라 유학생들이 많았던 통일신라시대에 봉우리의 명칭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오봉을 나오면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이중 남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장계에 꼭 가봐야 한

다. 무슨 생각으로 남산에 불상과 사찰, 탑을 조성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용장계에서는 총 22개소의 사지가 분포돼 있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용장사지다. 용장사는 설장스님, 즉 매월당 김시습이 주석한 곳이다.

김시습은 5세부터 시를 지을 정도로 신동으로 알려졌다. 조선의 최고 성군인 세종도 그의 재능을 출중히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김시습은 1455년 세조

약수곡 제3사지 부재에서

양면불 증거 찾을 수 있어

險路인 용장계 따라 가면

석탑과 불상이 곳곳에 산재

용장사지엔 김시습의 향훈이

의 단종 폐위사건으로 세간 정치에 환멸을 느껴 21세에 나이에 출가해 설장이라는 법명을 받는다.

그 후 김시습은 남산 금오봉에 들어와 용장사에 주석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은 곳도 바로 용장사이다. 또한 김시습은 용장사에 주석하면서도 영월이 유폐된 단종을 잊지 못해 뜨락에 핀 꽃들을 보며 슬퍼했다고 전해진다.

김시습이 지은 시조 '용장사유회시(甯長寺有懷詩)'를 보면 그가 남산과 금오봉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다.

'용장 산골짜기 깊으니(甯長山澗幽) / 오는 사람 볼 수 없네(不見有人來) / 가는 비에 신우대는 여기저기 피어나고(細雨移溪竹) / 비끼 바람은 들매와 곱게 흔드네(斜風護野梅) / 작은 창가에 사슴 함께 잠들었고(小窓眠共鹿) / 낚은 의자에 앉으니 몸과 마음 식은 재로다(枋椅坐同灰) / 초가집에 딸린 밭두둑이 알지 못하는 사이(不覺茅畦) / 들에는 꽃들이 지고 또 피어난다(庭花落又開)'

하늘 높이 오른 석탑에는...

용장계를 따라 30분정도 가니 기암절벽의 사잇길이 나온다. 바위와 바위 사이 협로를 타고 넘으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아담한 탑이 눈에 들어온다. 보물 제186호 용장사지 삼층석탑이다. 이 탑을 보지 않고는 용장계를 왔다고 할 수 없다.

남산에 산재한 대부분의 탑들이 그렇듯 용장사지 삼층석탑 역시 조형 방식이 독특하다. 기단을 만들지 않고 1층 몸돌부터 바로 탑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양식은 남산 탑곡, 대지암곡, 늪비봉 석탑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신라인들은 하층 기단없이 기암절벽 위에 탑을 조성했을까? 최 소장은 부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 한 신라인들의 불심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남산의 기암을 기단으로 삼고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전에 이르고자 했던 염원이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의 불상도 석탑 아래 존재한다. 바로

보물 제187호 삼층대좌석 여래좌상, 일명 미륵장육상이다. 직육면체의 자연석을 가공해 하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3매의 원형 대좌석을 잇달아 얹힌 모습이 독특하다. 가장 위에는 불두(佛頭)가 결실된 불상이 얹혀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당시 용장사에는 대현 스님이 주석했는데 이 스님이 불상 주위를 돌면 이를 따라 머리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용장계를 내려오니 석탑이 아득하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명인 '다문제일' 아난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절벽에 홀로 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용맹 정진을 했고,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 남산의 기암 위에 우뚝 서 있는 탑들은 아난다와 같은 신라인들의 불심과 구도심의 소산이 아닐까. 그들에게 남산은 부처님 세상, 도솔천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 신종일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12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신라의 호국신앙을 찾아서
- 일시 : 12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 정진 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남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